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정책토론회

일시

2025.8.13.(수) 오후 2시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김영배 의원, 복기왕 의원, 최혁진 의원
국제개발협력학회, 사회적금융포럼, 임팩트스퀘어,
임팩트 얼라이언스



식 순

시간	내용	
14:00-14:05	개회	
14:05-14:15	환영사/축사	최혁진 국회의원 정현주 연세대학교 교수
14:15-14:20	단체사진 촬영	
14:20-14:35	발제	소셜벤처의 ODA 참여 현황진단 및 개선 방향 -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14:35-15:05	지정토론	모더레이터 : 정현주 연세대학교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 송지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안정권 주식회사 노을 CSO - 서동성 KOICA 기업협력사업팀 팀장
15:05-15:25	자유토론	검토의견, 종합논의
15:25-15:30	폐회	

발제

소셜벤처의 ODA 참여 현황진단 및 개선 방향

도현명 대표

임팩트스퀘어

소셜벤처의 ODA 참여 현황 진단 및 개선 방향

발제자: 도현명 대표 (임팩트스퀘어) timothydho@impactsquare.com

일시: 2025년 8월 13일 14:00

장소: 국회 6간담회실

1. 서론: ODA 소셜벤처 참여 근거

■ Funding Gap

- SDGs Funding Gap은 매년 최소 2천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ODA 자금을 확대하는 방안만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 때문에 ODA 영역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혁신적 시도를 지속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소셜벤처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장과 확장

- 유럽의 소셜벤처들은 아프리카와 동유럽으로, 북미의 소셜벤처들은 중남미로 진출하며 그 경제적/임팩트적 성장 및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 국내 소셜벤처는 2017년 이후 정책적 지원에 따라 크게 양적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지원정책의 종료와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의 침체 및 경기 둔화로 큰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벤처들에게 ODA 참여를 통한 개발도상국 진출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현황 진단: 기반은 닦였으니 성장을 도모할 때

■ 글로벌 사례

- 영국 (BII & FCDO): 국영 개발금융기관(BII)을 통해 ODA와
임팩트투자를 연계하고, 외교부(FCDO)는 '성과 중심 보조금 + 민간
투자' 모델로 혁신 기업을 지원합니다.
- 네덜란드 (DGGF): 공공-민간 블렌디드 파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개도국에 진출하는 청년·여성 창업가에게 직접 투자와 보증을
제공합니다.
- 미국 (USAID DIV): 혁신 기업에게 단계별 보조금을 제공하고, 임팩트가
검증되면 후속 지원으로 연결하는 '혁신 주체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국내 현황** ('ODA정책연구 24-02_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과
시사점' 외 기타 분석자료 참고)

- 국내 ODA 시스템에서 소셜벤처는 주로 혁신적개발협력사업 중 CTS와
IB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카테고리에서는 희소한 편입니다.
CTS에서는 노을, 에누마 등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기여했고 최근에는
특히 IBS 중심으로 임팩트투자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 다만 CTS의 경우 최초 만들어진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등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참여기업 87개 중,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곳은 약 56%(49개)에 달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중기부의 '소셜벤처'로 판별받은 기업은
16%(14개) 수준입니다. 물론 인증이나 판별을 획득하지 않은
기업도 사회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목적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87개 기업이 CTS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육성적 성격이 목표라면 좀 더 육성 기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 ✓ 한 단계 참여: 67개 기업 (전체의 약 77%)

- ✓ 두 단계 참여: 18개 기업 (전체의 약 20.7%)
- ✓ 세 단계 참여: 1개 기업 (에누마코리아) (전체의 약 1.1%)
- 소셜벤처가 직접 활용하기에 적합한 CTS 사업은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3억~5억 원 규모가 일반이라면, 이는 최대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 실제 국내 소셜벤처 중에는 영국이나 호주의 ODA 자금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 ODA 프로그램 신청이 더 수월함에도 금액의 차이나 사업의 유연함 때문에 해외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다고 말합니다.

3. 제도적 한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

■ 부처 정합성의 한계

- ODA 관련 제도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외교부, 중기부, KOICA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으며, 소셜벤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도 유연성의 한계

- 기존의 ODA 사업은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소셜벤처나 임팩트투자에서는 잘 맞지 않는 제도적 틀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보조금 중심에 후정산 위주의 사업구조는 소셜벤처 참여에 육성이라는 관점을 같이 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현재 KOICA의 ODA 일부에만 소셜벤처가 참여하면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DFI를 통한 투자, 출자, 대출, 보증, PF 등의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자금의 형태와 금융수단에 대한 제약이 큼니다.

4. 제안: 소셜벤처를 통한 혁신적 ODA 생태계를 만들기

■ 제도 개선1. ODA 규제 샌드박스 시범 도입

-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규정에 위배되지만 실제로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이라면, 한정된 기간과 목적 안에서 샌드박스의 허가 하에 해당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이를 통해 충분한 가치가 증명된다면 규정과 규제를 조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제도 개선2. 사회적 가치 측정 및 공시 강화

- 다양한 규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PDM 등의 성과 측정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시하는 등의 참여 조직의 책임 강화합니다.

■ 제도 개선3. 금융 구조 다각화

- 소셜벤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선지급 구조 일부 도입하여 작은 프로젝트에는 소규모 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IBS에서 수행되고 있는 혼합금융 등의 강화와 다변화를 지속합니다.
- KOICA의 기존 보조금 방식 외 신보, KDB, 수출입은행 등 다양한 정책금융 연계를 통한 출자, 융자, 투자, 보증 방식 도입을 시도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개발금융조직 신설 및 KOICA 등에 중간 단계 성격을 부여합니다.

■ 제도 개선4. 육성 역량 강화

- 소셜벤처의 경우 임팩트 창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최적화된 육성/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CTS의 경우 중기부의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잘 맞물려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제도 개선5. 글로벌 임팩트 파트너십

- 최소한 아시아의 ODA 기반 임팩트 파트너십의 구축과 대표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APEC 정상회담에 맞추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포용번영 파트너십’ (Asia Inclusive Prosperity Partnership, AIPP)과 포럼을 발족하여 아젠다를 리딩합니다.
 - 이는 최근 일본의 스타트업 붐(기업대상 임팩트 투자 자금만 10조원 규모 마련)을 활용하여 한국 임팩트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시장 진출 및 아시아협력 모델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는 상당부분 닮아 있어서 상호 교류와 적용 및 학습이 유용합니다.
 - JICA와 KOICA의 협력을 기반으로 임팩트 스타트업을 통한 한일 공동 아시아 ODA 실천이라는 주제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 나아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검토하고 있는 아시아 임팩트 거래소를 한국, 대만, 베트남, 인니, 싱가포르 등과 협력하여 구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5. 결론: 소셜벤처는 수혜자가 아닌, ODA 혁신의 파트너이자 투자 대상입니다

- 소셜벤처는 개발협력의 지원금을 받는 단순 수혜자가 아닙니다.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장기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정책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한국형 ODA가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소셜벤처라는 핵심 촉매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송지혜 전문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토론문]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KIEP 국제개발연구센터 송지혜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과 시사점” (KIEP 2024, 송지혜·유애라·이예림)

1. 연구목적

-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과 사례, △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병목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공

2. 연구 구성

- 1) 국제사회의 사회적 기업 관련 논의 및 제도 분석
- 2) 공여국별 사회적 기업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위한 제도 분석
- 3) 우리나라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 및 사례 분석

3. 연구방법

- 통계·문헌 분석, 전문가 간담회, 관련부서 담당자 및 국제개발협력 참여 소셜벤처 심층면담

4.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 주요 제약요인: △ 제도와 현실의 간극, △ 참여 기회의 부족, △ 국제개발협력에 이해를 갖춘 기업가 부족 등
- 정책적 시사점
 - 1) 관련 제도의 재정립: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제도의 실효성 개선 필요
 - 2) 잠재적 기업가들이 참여 가능한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 확대
 - 3)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춘 기업가 양성

주요 토론요지: 소셜벤처에게 유익한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1.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의 **양적인 확대, 질적인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국제개발형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은 KOICA의 CTS와 IBS가 유일하며, 중기부·산업부 등의 해외진출 프로그램은 추진 목

적과 성과가 기업의 시장개척을 포함한 영리추구에 집중(재정적 성과 중심 KPI) 되어 소셜벤처, 임팩트벤처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음.

참고) USAID DIV는 기업 단계별로 20만~150만 달러 차등지원, KOICA CTS의 경우 3억~5억 원 규모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 개발금융기구(DFI)를 활용하여 소셜벤처에 임팩트 투자 지원(직접 투자, 임팩트 투자사를 통한 간접 지원 병행)

- 면담 참여 기업 중 일부는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는 재정적 지원보다 역량 강화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였음.

ex) ‘ODA 재정지원은 모든 지출에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야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행정적 부담임.’; ‘ODA로 구축한 인프라는 수원국에 귀속되므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 현지에 생산설비를 구축하여도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음. 소유 또한 불가’; ‘재정적으로 뭔가를 제공해주기 보다는 기업에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주는 계기들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됨.’

2, 장기적으로는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임팩트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소셜벤처의 가장 큰 도전과제, 즉 재원조달의 한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연구를 통해 검토한 공여국(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은 모두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직·간접 임팩트 투자를 핵심 도구로 활용함.
- KOICA IBS에서도 투자사와 협업하여 개도국 대상 임팩트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가 제한적으로 존재함. 한편 연도별, 대개 증여성(양허성 차관 또한 높은 양허율을 고려하면 증여 성격으로 간주 가능)인 우리나라 ODA 예산 구조상, ODA 재원을 대규모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순환시키는 구조의 사업은 운영이 어려움.
- DFI에서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재원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이는 실제로 대부분의 공여국이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방식임.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주체로부터의 재원동원을 강조하고 있음. 현행의 증여중심, 단년도 방식의 ODA 예산구조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 DFI 등을 활용한 개발재원 다각화 노력을 통해 소셜벤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SDGs 재원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지정토론

안정권 CSO

주식회사 노을

의료 AI 소셜 벤처 '노을'의 혁신적 개발협력 활동과 제언

안정권 CSO (노을)

1. 회사 소개

- 노을은 전 세계 의료 접근성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설립한 딥테크 기반 소셜 벤처이며, 실험실과 전문 인력 없이 사용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전자동화 진단 기기인 '마이랩'을 개발하였습니다.
- 마이랩 플랫폼은 온디바이스 AI, 소형 로봇틱 자동화 기술, 바이오 원천기술이 융합된 혁신 제품으로, 현장에서 정확도 높은 혈액 및 암 진단이 가능합니다.
- 노을은 마이랩을 전 세계 진단 현장에 보급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 10억 명의 삶에 임팩트를 미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2. 노을의 CTS 사업 주요 성과와 시사점

- 노을은 KOICA CTS Seed 1 사업 선정과 함께 2015년 12월 설립하였으며 Seed 2 사업까지 참여하였습니다. CTS 사업 취지가 노을과 잘 맞았을 뿐 아니라, CTS 사업을 통한 KOICA의 지원이 노을의 초기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특히, 신생 민간기업으로서 각국 정부, 보건 관련 국제기구, 연구 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는 외교부와 KOICA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추진에 도움이 되는 신인도를 빠르게 확보하고, 스위스 지사 설립, 우수한 연구 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 스타트업 임에도 CTS 기업으로서 좋은 평판과 초기의 빠른 성장 속도 덕분에 이후로도 조달청 혁신 시제품 선정, RIGHT Fund Award 선정 등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2022년에는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까지 이루었습니다.
- 또한, 초기의 개발 성과가 이어져 노을의 첫 제품인 말라리아 진단 솔루션은 지난 수년 동안 글로벌 임상과 AI 성능 개선을 이루었고, 현재는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의 진단 정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 노을의 사례를 볼 때, 소셜 벤처의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력이 CTS, IBS 같은 컨셉의 사업을 만나면, 해당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개발협력 문제의 해결과 임팩트 창출에도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초기 성장 단계에 여러 실효성 높은 지원을 받았던 것에 비해 CTS Seed 2 사업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검증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오히려 적합한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 소셜 벤처들이 초기에는 효과적인 지원 속에 성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중기 이후 육성 및 지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팩트 모델을 시장에서 검증, 확장하는 시기에 지원이 부족해 소셜 미션을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3. 소셜 벤처의 ODA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소셜 벤처의 ODA 참여를 위한 육성 및 지원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적 확대: 재원 규모, 지원 기간 및 단계, 지원 범위 등.
 - 질적 확대: 재원 활용의 유연성 강화, 산업 및 사업 특성에 따른 차별화 등.
- 소셜 벤처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실효성 높은 임팩트 창출을 위해 공동 기획형 지원 프로그램 같은 매우 유연한 방식이 활성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 글로벌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여러 영역의 중요한 펀더(Funder)로서 국제 사회에 국익 중심의 목소리를 더 강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또한,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 기술 기반의 임팩트 프로젝트나 광범위한 규모의 임팩트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스케일 업'할 수 있는 프로세스 도입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정토론

서동성 팀장

KOICA 기업협력사업팀

1. 소셜벤처의 KOICA 프로그램 참여 개요

□ KOICA DIP 프로그램 개요

- (어원)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 개발협력 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협업하여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혁신* 사업
- * (혁신에 대한 정의) 혁신적 자원 수단 마련,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서비스 및 물품의 개선, 사회경제모델 및 과학기술의 개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 KOICA DIP 프로그램별 목표 및 대상 기업

구분	CTS	IBS	IPS
프로그램 목표	개발도상국 사회·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개발도상국 빈곤퇴지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포용적 비즈니스 도입	개발도상국 금융격차 해소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
참여 대상 기업	법인 설립 10년 이내의 초기기업	대·중견·중소·사회적기업, 공공부문 및 비영리재단 등	해외 공여기관, 국내외 민간 파트너

2. DIP 프로그램별 개요

1-1 혁신적기술 프로그램(CTS) 개요 □ (목적) 예비창업가, 스타트업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공적개발원조(ODA)에 적용해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 해결에 적용,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대상) 업력 10년 이내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소셜벤처 □ 사업예산 및 규모 ○ (사업예산) 111억 원(2025년 기준) ○ (사업추진방식) 매년 공모를 통해 차년도 CTS 신규 참여사업 발굴
1-2 CTS 단계별 추진 내용 □ (Seed 0) 예비 창업가 및 창업 초기기업 역량강화(사업비 지원 없음) □ (Seed 1) 기술 개발 및 현지 실증(최대 4억원 지원) □ (Seed 2) 시범 비즈니스 사업(최대 7억원 지원) □ (Seed 3/TIPS형) 솔루션 확산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최대 15억원 내 투자사와 분담 지원)

2-1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개요

- (목적) 국내 중소기업·중견·대기업의 ESG 활동, 비즈니스 가치사슬 등과 연계하여 민간의 재원, 비즈니스모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개도국 내 경제·사회적 가치(일자리, 소득증대 등) 창출에 동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대상) 대·중소·중견·사회적기업 및 공공부문·시민단체·해외법인
- 사업예산 및 규모
 - (사업예산) 247억 원(2025년 기준)
 - (사업추진방식) 매년 공모를 통해 차년도 IBS 신규 참여사업 발굴

2-2 기업 유형별 총사업비 분담(매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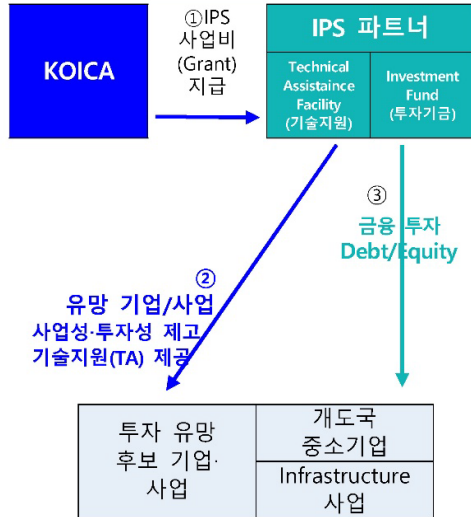
구 분	KOICA : 파트너	구 분	KOICA : 파트너
대기업 (자산규모 10조 이상)	5 : 5	중소기업 (자산규모 0.5조미만)	7 : 3
중견기업 (자산규모 0.5 - 10조)		사회적기업	8 : 2

3-1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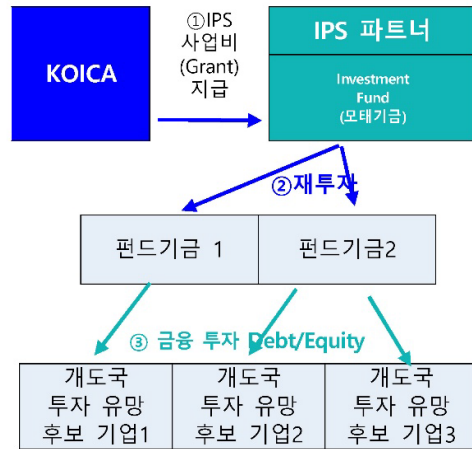
- (정의) 공공과 민간자본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통해 개도국 금융시장 강화 및 금융격차 해소, SDGs 달성에 기여하며 OECD 혼합금융* 원칙에 기반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
 - * 혼합금융 사업 : 개발재원과 민간자본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도국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사업
- (목적)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확대, ▲개도국 민간부문 대상 금융지원 확대 및 금융격차 해소, ▲SDGs 달성 기여, ▲KOICA 포트폴리오 다변화 선도 등
- (대상) 다자 공여기관 협의체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국내외 민간 파트너
- 사업예산 및 규모
 - (사업예산) 51억 원(2025년 기준)
 - (사업추진방식) 매년 공모 및 선진 원조기관 협업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3-2 IPS(혼합금융) 사업 체계 예시

유형①-기업/인프라사업 지원형 혼합금융사업



유형② - 펀드 오프 펀드형 혼합금융사업



3. DIP 프로그램별 성과 (제도개선, 사업성과 등)

1 CTS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 (제도개선)

① 단계별 사업비 증액

구분	Seed1	Seed2	Seed3(TIPS형)
기존(2024년)	3억 원	5억 원	-
개선(2025년)	4억 원	7억 원	11억 원

② 환율 변동 대비 예비비 편성 한도 상향

- (기존) 최대 8% → (개선) 최대 10%까지 예비비 편성 가능

③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보전을 위해 최신 공급원가를 반영하여 계약대금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사업성과)

- 2024년 CTS 참여기업 외부 투자유치액* 476억 달성 (2023년 343억)

* CTS 파트너기업의 외부투자기관(민간·정부) 투자유치액, 정부지원금 총합

- CTS 참여기업,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을 통한 현지 수주 230만불(30억원) 달성

대표사례

(주)닷(dot), KOICA 혁신기술 사업화(CTS) 프로그램 및 실증지원을 통해 100만불 규모 해외 수출 연계 성공

KOICA CTS 참여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자 선정
- 시각장애인 학습기기 닷패드, CTS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참여 (8억 금융지원) 케냐와 인도에서 실증 완료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 공공조달 수요 발생 시 신속 보급이 가능한 기반 구축	-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현지 수요 발굴하여 기자재 납품 지원 100만불 규모의 추가 수출 연계 - 캄보디아 시각장애인 교육 사업 연계

2 IB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제도개선]

- ① 민간 업무관리툴(플로우) 도입을 통한 행정 간소화
 - 사업변경 관리, 투입인력변경 관리 등 공문서 작성 최소화
- ② 환율 변동 대비 일반관리비 편성 한도 상향
 - (기존) 최대 5% → (개선) 최대 10%까지 일반관리비 편성가능

□ [사업성과] IBS 참여기업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ITMO) 선정

대표사례

e-모빌리티 기업 (주)베리위즈, KOICA·공공 ONE TEAM 지원으로 성장 가속화!

- 캄보디아 탄소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모델(베리위즈) '사업조사-사업실행-확대' 목표, 한국에너지공단-KOICA-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협력을 통해 실현 및 단계별 스케일업 성과 창출

초기 사업 타당성 검증	사업 현지화 추진	스케일업 도약
① 한국에너지공단 캄보디아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증 및 사업기획 실시	② KOICA IBS 프로그램 캄보디아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이행 및 현지화 추진 (30억 규모, 5년간)	③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ITMO사업) 선정 (60억원 이상)

3 IPS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제도개선]

- 국내외 혼합금융 프로그램 통합
 - 'IBS 혼합금융형 사업(국내기업)-IPS 사업(해외기업)' 통합을 통한 국내 기업의 혼합금융 프로그램 진입 유도 및 해외기업 간 연계 활성화 도모

□ [사업성과]

- 2024년 기준 민간개발재원 USD 384,403,162* 동원 (9개 사업 기준)
- * IPS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약정서상 명시된 파트너기관의 약정 분담액

4. DIP 프로그램별 향후 운영계획

1 CTS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 예산 확대 기초 유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 (확정액 기준)	44억 원	84억 원	110억 원	예산심의 중

○ 유망 소셜벤처 참여 기회 확대

- 2025년 CTS 계속사업 32건에서 2026년 50건까지 확대 도모

○ 민간투자유치액* 증대 도모

* CTS 파트너기업의 외부투자기관(민간·정부) 투자유치액, 정부지원금 총합

구분	2023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확정액 기준)	260억 원	343억 원	476억 원	555억 원(목표)

2 IB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예산 확대 기초 유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 (확정액 기준)	147억 원	202억 원	247억 원	예산심의 중

○ 대·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 2025년 IBS 계속사업 54건에서 2026년 65건까지 확대 도모

○ 민간 일자리 창출 증대 도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일자리 수 (국내,해외 포함)	1,688개	2,107개	2,270개(목표)	2,448개(목표)

3 IPS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예산 확대 기초 유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 (확정액 기준)	8억 원	23억 원	51억 원	예산심의 중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기회 증진

○ 외부 민간재원 유치 증대 도모

5. DIP 프로그램 스케일업 사례

- 참여기업의 스케일업 관련 사항
- CTS 참여기업 중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인증 관련

□ 2024년도 DIP 기업성장 사다리(스케일업) 건 수

구분	이노포트→ CTS	CTS		CTS→IBS	IBS→IBS
		Seed0→Seed1	Seed1→Seed2		
건 수 (기업 수)	2개	2개	5개	3개	3개
진출단계	Seed1(1개) Seed2(1개)	Seed1(2개)	Seed2(5개)	IBS(3개)	IBS 2차(3개)

□ 국내 사회적기업 인증의 경우 관련법상 7개 요건을 모두 부합해야 하며, 소셜벤처 인증의 경우 관련 제도상 16개 항목에서 총합 70점 이상을 득해야 할 정도로 매우 엄격함.

- CTS 참여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목적상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업이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증 비율에서는 다소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다만, CTS 프로그램의 필수 산출물 중 하나로 민간기업의 국제 ESG 달성 측정지표인 비콥*인증 자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비콥(Benefit Cooperation) 인증 : 기업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균형있게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지 평가하는 국제 인증

6. KOICA 소셜벤처 육성/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CTS Seed0 프로그램
- 이노포트 프로그램

□ CTS Seed0 프로그램 개요

- (정의) 초기기업의 ODA시장 진입 및 CTS Seed1 유입 확대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예산) 1,810,897,912원 (2025년~2026년)
- (선발기업) 총 45개 팀 (3회차/회차별 15개팀)
- (대상국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케냐, 필리핀
- (지원내용)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및 개발협력 역량강화

- 사업모델 수립 멘토링, 분야별 맞춤 컨설팅, 사업 모델 고도화
- 현지 창업기획자 멘토링,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모델 검증, 현지 파트너 발굴 지원
- CTS 선배기업, 창업기획자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 이노포트 프로그램 개요

- (정의) 초기·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화 지원 및 ODA 시장 진입을 위한 보육 및 육성 프로그램
- (예산) 1,553,500,000원 (2023년~2025년)
- (선발기업) 총 20개 내외 (입주기간 1~2년)
- (대상국가) KOICA 사무소 소재국
- (지원내용) 개발협력 역량강화 및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 기업진단 및 투자 유치 지원
- 개발협력 사업화 교육 및 컨설팅
- 대/중소/사회적 기업 및 NGO 간 밋업 등 교류 프로그램 지원
- 창업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공동 IR피칭 지원
- KOICA 연수생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비수도권 국제개발협력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을 통한 설명회 개최 등

MEMO

MEMO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정책 토론회

김영배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국제개발협력학회, 사회적금융포럼, 임팩트스퀘어, 임팩트얼라이언스